

## The place of education in young people's lives: sample listening and responding tasks

### Task 2

Listening texts transcripts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청소년 잡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150-200 단어 내외의 한국어로 쓰세요.

Based on the texts you will hear, write an article of 150-200 words in Korean for a youth magazine on the topic ‘the ideal education system for young people’.

### Text 1

여학생: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게 10대들에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가 입시라는 무차별적인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나, 반대로 낙오에서 생기는 일탈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남학생:

10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10대들을 이해하려면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여학생:

청소년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급증하여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정환경에 맞추어 가정 교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주는 시설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겁니다.

남학생: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기성세대들의 발상의 전환과 교육제도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

뿐만아니라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문물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10대들이 선호하는 랩이나 재즈와 같은 실용음악이나 연극 등을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 재미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신적 중압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다원화 사회가 우리 눈 앞에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획기적인 교육 제도로 육아매 놓아야 합니까?

## Text 2

교실에서 교사가 질문을 할 때, 무언가 ‘남들과 다른’ 대답을 하는 학생은 답변 내용에 상관없이 눈총부터 받게 된다.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 문제를 푸는 모든 학생은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앉아 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강요당한다. 나는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데 직원들이 단합하여 일정 이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사람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를 만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남달리 뛰어난 재능 역시 단순히 ‘그들의 가치 기준과 행동 양식’에 부합되지 않는 ‘특징’일 뿐이다.

우리 나라 교육이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교실 분위기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남과 다름’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단일화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한 ‘성적’뿐이다. 그나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칫 따돌림 당하기가 쉽다. 어떻게든 초, 중, 고 12년을 ‘버텨낸’ 학생들에게도, 학교 생활에 못지 않는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 받고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하나의 순환과정이 되어 되물림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열쇠는 교육이 쥐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제도의 개혁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의 개혁이 더 절실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학생들부터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현실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보다는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창의적인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 국가적인 재산이다. 어쩌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난 사람 하나가 그렇지 않은 사람 열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튀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매장하는 분위기를 타파해야만 한다. 지식정보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생산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우리 자신부터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In your answer you will be assessed on how well you:**

- compare and contrast information, opinions and ideas
- compose a well-structured argument supported by textual reference
- convey information and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